

교회 3대 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주간충현

•교회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시 18:1)"

•이주일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
하심이 영원함이로다"(시편 107편1절)

발행인 / 이종윤,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주간충현」신문사 소석관 112호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Published by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대표전화 552-8200, 팩시밀리 552-2925, 편집국 직통전화 554-1615

교역자 · 장로 제자훈련

내일(28일)부터 1박2일간 충현기도원서

이미 보도한바와 같이 89년도 충현제자훈련이 내일(28일<월>)부터 충현기도원에서 실시된다.

지난 호에 게재된 교역자 제자훈련 일정 24~25일은 장로와 함께 28~29일 같이 진행기로 결정했다.

지도급에 있는 교역자 · 장로들이 제1차로 훈련을 받게되는데, 계속해서 직분자, 찬양대원, 평신도들이 훈련을 받게된다.

교구별 찬양경연대회
일자변경 9월9일(토)로

교회설립 36주년기념 행사의 일환인 교구별 찬양경연대회 일정이 여전교회 특강 일자와 겹치는 관계로 9월8일에서 9월9일(토) 오후2시로 변경되었다.

각교구 찬양대원들의 착오없기를 바라고 있다.

교회사서함 개설

성도들의 편의를 위하여 본교회 사서함을 지난주간 개설하였다.

사서함번호
영동우체국 1896호

김창원로목사

9월6일부터 2개월간 해외선교집회



김창원로목사가 오는 9월6일부터 11월15일까지 해외집회 및 성지순례 일정에 오른다.

약 2개월 10월동안 해외에 체류하면서 말씀을 전하며 복음화운동에 전념할 김목사에게 영유간이 강건함과 좋은 열매가 있기를 충현 성도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기도가 있기를 바란다.

중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9월7일~10일/나성 세리토스 한인교회 집회

▲9월14일~17일/시애틀 타고마중앙장로교회 집회

▲9월21일~24일/샌프란시스코 서부교회 집회

▲9월28일~10월1일/샌프란시스코 천성교회 집회

▲10월5일~10월8일/밀워키 한인교회 집회

▲10월12일부터 터키지역 성지순례

▲10월28일~29일/뉴욕충현교회 목사위임식 장로안수식 인도

▲11월3일~5일/하와이 호놀룰루 한인장로교회 집회

▲11월9일~12일/광 태평양장로교회 집회

▲11월13일~14일/광 팔라오지역 선교지순례

▲11월15일 귀국 예정

▲교육위원회

·탁아부: 유순화전도사 ·영아부: 김연이전도사 ·유치부: 정연희전도사 ·유년부: 김경성전도사 ·초등부: 김창수목사 ·소년부: 김주아전도사 ·중등부: 김은태목사 ·교동부: 김광석목사 ·대학부: 김해규목사, 양창근전도사 ·청년1부: 김익경목사 ·청년2부: 성주진목사, 한용관전도사 ·장년1부: 김학진목사 ·장년2부: 박형용목사, 구명신전도사 ·장년3부: 윤영탁목사 ·소방부: 김영구목사, 김정순전도사 ·제전부: 송태근목사, 장혜순전도사 ·새가족부: 최인근목사, 정복인전도사 ·새신자부: 이조웅전도사, 장영자전도사 ·세례부: 김동열목사, 현정남전도사 ·사랑부: 배원길목사, 김정자전도사 ·예배다부: 김성윤목사, 임태주전도사 ·살롬대학: 최순복전도사 ·유치원: 최명자전도사 ·성경연구원: 이조웅전도사, 한용관전도사, 김성식전도사

카메라초점



▲ 여름계절학교가 모두 끝났다.(사진은 장년1 · 2부 89년도 합동 여름수양회 모습)



▲ 충현 살롬경로대학 찬양대가 신설되어 지난 8월20일 주일찬양예배서 첫선을 보였다.

충현기도원 이용을!

전용버스 매일 오후8시 출발

우리의 기도의 동산 충현기도원(경기도 평주 초월면 소재) 이용 편의를 위해 전용버스가 이미 도입되었고, 매일 오후8시 본교회당 주차장에서 기도원으로 출발하고 있다.

그리고 수요일과 주일에 저녁예배 이후 출발하며, 토요일은 운행을 중지한다.

차량이 무료로 운행되고 있으니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

89년도 여름계절학교 모두 끝나

교육위원회 산하 24개 부서 중 18개 부서가 89년도 여름계절학교를 모두 마쳤다.

지난 6월6일 새가정부를 시작으로 하여 8월 26일 소망부를 끝으로 약 2개월간 여름교육행사가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이번 여름행사엔 학생 5천여명(비공식 집계), 교사 7백여명이 참가했다.

계절학교를 끝낸 부서들은 자체적으로 평가회를 갖고 반성과 권의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소망부(부장/ 강모용장로)는 제14회 여름수양회를 8월25~26일 충현기도원에서 개최했다.

"거룩한 백성의 생활"이란 주제로 열린 동 수양회의 강사는 김영구 목사와 김정순 전도사이다.

이양우목사 사임
도미 유학관계로

제10교구와 청년2부를 지도했던 이양우목사가 도미 유학관계로 본교회를 사임했다.

이목사는 미국 미시시피, 잭슨시의 개혁신

교구담당 · 교육지도목사 충원 및 일부 이동

최인근 · 김창수 · 김은태목사 부임



〈최인근목사〉 〈김창수목사〉 〈김은태목사〉

교회는 그동안 교역자이동으로 공석 중이던 4교구, 5교구, 10교구 지도교역자에 최인근, 김창수, 김은태목사를 배정했다.

지난 7월 당회에서 세 분 목사의 청빙을 허락하고, 8월22일 부임하여 위임목사를 보좌하며 각 교구를 지도한다.

또 교육위원회 산하 각 부서의 지도교역자 일부 이동 · 충원 · 재조정되었다.

교구위원회, 담당교육자회 교육위원회 지도교역자는 다음과 같다.

▲ 교구위원회

·1교구: 김해규목사, 장영자전도사 ·2교구: 김학진목사, 김주아전도사 ·3교구: 송태근목사, 구명신전도사 ·4교구: 최인근목사, 임태주전도사 ·5교구: 김창수목사, 정복인전도사 ·6교구: 김영구목사, 김정순전도사 ·7교구: 이원길목사, 유순화전도사 ·8교구: 김동열목사, 김경성전도사 ·9교구: 이세열목사, 정연희전도사 ·10교구: 김은태목사, 김정자전도사 ·11교구: 김익경목사, 최명자전도사 ·12교구: 김성윤목사, 최순복전도사 ·13교구: 윤영탁목사, 장혜순전도사 ·14교구: 김광석목사, 현정남전도사

▲교육위원회

·탁아부: 유순화전도사 ·영아부: 김연이전도사 ·유치부: 정연희전도사 ·유년부: 김경성전도사 ·초등부: 김창수목사 ·소년부: 김주아전도사 ·중등부: 김은태목사 ·교동부: 김광석목사 ·대학부: 김해규목사, 양창근전도사 ·청년1부: 김익경목사 ·청년2부: 성주진목사, 한용관전도사 ·장년1부: 김학진목사 ·장년2부: 박형용목사, 구명신전도사 ·장년3부: 윤영탁목사 ·소방부: 김영구목사, 김정순전도사 ·제전부: 송태근목사, 장혜순전도사 ·새가족부: 최인근목사, 정복인전도사 ·새신자부: 이조웅전도사, 장영자전도사 ·세례부: 김동열목사, 현정남전도사 ·사랑부: 배원길목사, 김정자전도사 ·예배다부: 김성윤목사, 임태주전도사 ·살롬대학: 최순복전도사 ·유치원: 최명자전도사 ·성경연구원: 이조웅전도사, 한용관전도사, 김성식전도사

이종윤위임목사의 수요일예배 성경강해 시리즈⑧



본문 / 요 6:6-9

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태도를 대별하면 두가지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의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위에 말한 두 종류의 사람중 누구를 쓰실지는 언급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일의 성과와 환경과 조건을 계산하느라고 시간만 소비했지 일의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은 믿음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성공률과 성취도가 높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고, 사용하실 수 없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1. 지식의 오용자 빌립

벧새다 광야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위하여 운집한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을 공급받았지만 육신은 인간인지라 배가 고파졌습니다. 이 때 나타난 사람이 빌립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제일 먼저 띤 사람이 빌립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고의적으로 빌립을 찾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5절)

빌립은 즉시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붙잡힘바 되어야

“...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6절)

빌립은 벧새다 사람입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동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느 곳에 음식이 있고 어디에 마실 물이 있는지, 누구 집에 쌀이 몇가마가 있는지도 잘 알 수 있는, 그 동리의 모든 것을 훤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빌립이 자기 지식에 꼭 잡혀있는 포로라는 데 있었습니다. 빌립은 아마도 자기가 이 마을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 앞에 한번 뽐내고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에 단번에 자기의 잘못된 지식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왜 우리는 빌립의 지식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모든 물질이 주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건강, 지식, 재물, 가족, 아름답고 귀한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기도 안하고 먹는다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음식을 앞에 놓고 감사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가 땀흘려서 번내 돈을 가지고 마련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지금 물질이 주님께 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을 잘못 사용하거나 비진리를 진리로 아는 것이 문제

자기가 계산해보니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빌립은 자기의 지식을 오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당면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대할 때도 주님의 전권을 인정하기 보다는 자기의 지식을 내세웁니다. 이것이 대개 실패의 원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쓰임받지 못한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자기의 ‘지식’이라는 그물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지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 없는 사람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식을 축복으로 받았는데 지식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지식을 가졌을 때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의

실패의 쓴잔 성공의 환희

교만입니다. 알기는 알아도 잘못 알면 다른 사람의 오�해도 받고 자신이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전혀 틀린 것을 확실하는 경우에는 어떤 때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어떤 때는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지식이 좋긴 하지만 얼마되지 않는 얕은 지식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됩니다. 잘못된 지식은 무가치할뿐 아니라 아예 없는 것만도 못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빌립이 쓰임받지 못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돈의 힘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없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돈”이라는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우매한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황금이 가치가 있는 때는 주님의 손에 있을 때라는 사실을 알아들으십시오. 돈은 간혹 비전을 제한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다 돈을 맞추지 않고 돈에다가 일을 맞추려고 하니 비전이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산 설정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빌립은 참으로 좋은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깜박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혼인집의 포도주 기적과 38년 된 병자의 치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소생하는 기적을 목도한 빌립이 인간적인 지식을 내세우며 방황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권능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알고 모르는 사이에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를 앞에서 좌절하고 부정적인 대답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2. 주님께 인도 된 어린아이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의 가정이나 배경이나 신앙이나 헌신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갖고 있었다”는 그 말이 전부입니다. 이 귀절에서 우리는 이 아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아이는 가난했다는 사실입니다. 보리떡은 유대사회에서는 짐승들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아무에게도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취급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게 보였던 이 소년이 예수님께로 인도되었을 때에 비로소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바람에 날려가면 흔적도 없을 먼지(성경에는 흙으로 기록됨)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인간이 되었습니다. 집어던지면 두 번 다시 쳐다볼 사람도 없는 당나귀 턱뼈가 하나님의 사람 삼손의 손에 잡히니까 원수를 진멸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데서나 나무 하나 꺾으면 되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잡혔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시냇가에 돌맹이 하나로는 가치가 없던 것이 하나님의 종

다윗의 손에 들려졌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무용하고 무가치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바 되었느냐하는 여부가 중요합니다. 적고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잡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것을 주님께 바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교량 역할을 했던 안드레

주님의 기적을 늘 체험하면서도 예수님의

원하는 대답을 해드리지 못했던 빌립은 낙제생이 되었는데 12제자 중의 하나라고 자랑한 안드레까지도 빌립의 입장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살 나일까”(9절)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안드레는 마찬가지로 실패의 길에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최고 경영자이심을 미처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최고 경영자입니다. 경영학을 공부하려면 성경을 공부하면 됩니다. 경영의

원리는 다 성경에 있습니다. 슈바이처는 음악박사, 의학박사, 신학박사인데 세균을 연구해서 의학박사가 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의학 용어를 연구하다보니 박사가 된 것입니다. 법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모세 5경을 공부하면 법학에 능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셨으니 이보다 더 위대한 경영자가 어디 있습니까?

본문에 안드레가 빌립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없으니까 안됩니다”가 아니라 그래도 가서 찾아본 것입니다. 다른 아이와 똑같은 평범한 어린아이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가 없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님이 필요할 때 내 것이 없으면 바칠만한 분을 찾아라라고 보아야 합니다. 누가 은사를 받았는지 찾아서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사받은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가진 것도 변변치 않고 믿음도 없고 주님 앞에 떡을 들고 나올 용기도 없는데 안드레가 이 어린아이를 주님 앞에 데리고 왔으니 안드레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위대한 사역자 사도 바울이 탄생할 수가 없었을 것이며 안드레가 아니었다면 페드로가 수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안드레가 필요하고 우리 민족에 안드레가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 안드레가 필요합니다. 받은 은사나 기회나 달란트가 적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해도 안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린 계집 종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엘레사 선지자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빌립의 자세를 탈피하십시오. 내 것은 없지만 어린아이를 찾아 적은 것이라도 바치게 했던 안드레의 자세를 가집시다. 비록 적고 부끄러운 것이나 주님께 바쳤던 어린아이처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기적을 체험하는 방법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늘 실패의 쓴 잔을 마시거니와 긍정적인 사람은 늘 성공의 환희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영어주일학교 개강

※ 교육대상: 외국인 및 영어권에서 교육을 받는자와 받은 자

※ 개설일자: 1989년 9월 첫주 영어예배 후 10시30분부터

※ 개 설 반: 5개반

유치부(Pre-School: 3-6세)

유년부(Primary School: 7-9세)

초등부(Primary School: 10-13세)

중·고등부(High School: 13-18세)

청장년부(Adult: 19세 이상)

※ 연 락 처: 영어예배위원회(나사렛홀 108호)

지교회방문 보고

금현교회를 다녀와서

바울 남전도회 협의회가 지원하고 있는 충현 지교회 금현교회가 설립 14주년을 맞이하였다.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외룡리에 소재하고 있는 금현교회는 몇분의 교역자가 바뀐후에 현재까지 장병기 목사가 만 6년째 시무하시는 농촌교회이다.

충현교회 남전도회 체제가 바뀔때마다 금현교회 자립을 위한 강구책을 시도했지만 4년이 되어도 아직 자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현 바울 남전도회 14개 지회장의 고문이신 김원선 장로님을 모시고 교회현황과 자원대책을 검토하기 위해 8월 10일 오전 11시 서울을 출발하여 12시 30분에 본교회에 도착했다.

협의회장의 사회로 송기홍 장로님이 기도한 후 장병기 목사님께서 골로새 1:13~14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으로 도착예배를 드렸다. 금현교회 성도님들이 정성껏 준비해 주신 점심식사를 풍성하게 대접받고 장병기 목사님으로부터 목회에 대한 현황을 들었다.

교세확장을 위해 숙원했던 봉고차를 지난



▲ 바울전도협의회 임원들이 금현교회를 방문하고.

“목회자의 땀과 눈물로 얻어진 열매, 무척 값진 것”

월에 36개월 월부로 매입했으며 이제는 주일예배와 수요일예배에 전보다 많은 성도가 참석한다고 하시면서 목회에 대한 의욕을 갖고 계셨다.

현재 교세는 주일예배시 50명 참석, 어린이 주일학교가 50명, 학생 15명 정도이다. 금현황은 월 100만원이 못되는 실정이며 봉고차 월부매입에 대한 지출 때문에 앞으로 1년 정도만 더 지원해주면 자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교회현황을 들으며

충현프리즘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입추가 지난지도 20일 되었다. 마지막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하지만 이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하다.

더위때문에 헤이된 우리의 마음과 육체에도 변화가 와야겠다. 게으름은 없는가? 주변환경이 어지럽지는 않았는지? 한번쯤 점검해 보자.

이젠 훌훌 벗어던진 옷가지도 정리하고 옷매무새를 새로이 단장해야 할 때가 아닌가?

계절학교도 · 평가회도 아두

약 2개월간에 걸친 여름 계절학교도 막을 내렸다.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으며, 청지기 정신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지난 8월 22일 오후에 있었던 장년1부(부장/김재명장로) 평가회는 너무나 진지했다.

허심탄회하게 대화가 오고간 이날 평가회는 「기도부족」을 들고 나왔으며,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못하고, 헌신적인 봉사를 하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모르게 수고한 교사들에게 위로와 용기의 북돋움은 이날 자체평가회의 하이라이트였다.

교회설립 기념행사 분주

오는 9월 3일이 우리교회 설립 36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행사가 각 위원회별로 준비되고 있다. 기념감사예배, 기념음악예배, 교구별 찬양경연대회,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선교옹변대회, 성극경연대회, 자선바자회 그리고 민족복음화 세미나 등의 행사를 위해 준비위원회가 조직되고, 행사기획, 예산수립, 진행방법 등을 강구하고 있다.

매주일 오후 3시 이후에는 각 준비위원회별로 회의가 열려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하자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리 충현의 모든 가족들이 출선수병 이번 행사에 참여함은 물론 기도로 협력하기로 하자.

남·여전도회 지교회 탐방 열을

우리 교회는 남여전도회 지회가 70지회가 된다.

70지회가 지원하는 교회는 약 100곳 이상이 되며, 각지회마다 해당 지원교회들을 방문하여

현지교회의 상황을 살펴보고 위하여 기도하며, 지원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번쯤 농어촌 지원교회를 다녀온 전도회원들은 가기전의 안일한 생각에서 적극적인 지원방법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현지형편을 직접 눈으로 보고 담당교역자의 설명을 통해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도와줄려는 의욕이 생긴다는 것이다.

무척 고무적인 이야기이다.

지금 「주간충현」은 이러한 일들을 지면을 최대한 할애하여 남여전도회 활동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계속 좋은 탐방보고를 보내 주길 바란다.

우리 충현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자립을 못하고 있지만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많은 열매를 맺고 있음을 알았다.

금현교회가 설립된지 14년, 목회자의 땀과 눈물로 얻어진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값진 것인가? 우리는 숙연한 자세로 지원에

보아야 할 것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파송려 값주고 사신 금현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 바울 남전도회 14개 지회장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소임중 지원에 보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음 교제되는 바울임원에게도 지원에 대한 보람있는 바톤을 넘겨 주기로 동의했다.

오후 3시 장병기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본교회 성도님들의 환송을 받으며 방문한 15명은 승용차 4대에 분승하여 금현교회를 출발 서울로 향했다.

실록이 우겨지는 계절! 오래간만에 생생하는 자연을 만끽하며 오늘 이 보람된 행로가 성도의 가치관이며 행복의 기준이 여기에 있음을 더욱 실감했다.

귀로에서 바라보이는 저 불신자의 행락!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는가?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위치에서 그들의 삶의 형태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에 복음의 햇빛이 힘차게 번져 나가도록 하소서.”

(바울협의회 제공)

여름계절학교有感

우리 충현교회가 36주년을 맞이하면서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천국 일꾼 양성이라는

교육이념을 이어받아 농아자들에게도 교육과 선교와 구제라는 목표아래 이종운 위임목사님께서 에바다부(농아부)를 1988년 10월 8일 개교하시고 제1회 여름계절학교를 열었습니다. 학생부는 7월 24일~25일에 “말씀을 힘써 배우자”는 주제로, 성인부는 8월 14~15일에 “새 사람을 입으라”는 주제 아래 모든 진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농아지만 구김살 없는 맑은 모습과 진지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받는 모습을 볼때에 이번 계절학교는 거듭난 성도가 되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 시민임을 재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형태의 장애자가 있지만 특히 농아인은 말하기와 듣기에 장애가 있는 관계로 일반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뿐 아니라 대화 수단인 수화도 대중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회에선 더욱 거리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충현 교회에선 수화교육을 실시하여 여러 성도님들에게 농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절학교에 에바다부를 관심있게 후원하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과 장사로 수고해주신 김학진 목사님, 김해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손기현(집사·에바다부 교사)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안내

암송범위: 마태복음 5장~7장(총 111절)

- 1) 영아반(만 4세이하) 마 5:3-10(8절)
- 2) 유치반(꽃반) 마 5:1-13(13절)
(열매반) 마 5:1-16(16절)
- 3) 유년반(국교 1학년) 마 5:1-26(26절)
(국교 2학년) 마 5:1-32(32절)
- 4) 초등반(국교 3학년) 마 5:1-48(48절)
(국교 4학년) 마 5:1-6:8(56절)
- 5) 소년반(국교 5학년) 마 5:1-6:18(66절)
(국교 6학년) 마 5:1-6:34(82절)
- 6) 중등반(중등부 및 만 13세-만 15세) 마 5:1-7:29(111절)
- 7) 고등반(고등부 및 만 16세-18세)

- 8) 직전반(직전부 및 근로청소년) 마 5:1-7:29(111절)
- 9) 대학부(대학부 및 만 19세-만 22세) 마 5:1-7:29(111절)
- 10) 청년1반(청년1부 및 만 23-26세) 마 5:1-7:29(111절)
- 11) 청년2반(청년2부 및 만 27-29세) 마 5:1-7:29(111절)
- 12) 장년1반(장년1부 및 만 30-39세) 마 5:1-7:29(111절)
- 13) 장년2반(장년2부 및 만 40-49세) 마 5:1-7:29(111절)
- 14) 장년3반(장년3부 및 만 50-69세) 마 5:1-6:34(80절)

- 15) 소망반(소망부 및 만 70세 이상의 노인) 마 5:1-6:48(48절)

- 16) 새가정반(새가정부 회원) 마 5:1-7:29(111절)

- 17) 사랑반(사랑부 학생) 마 5:3-10(8절)

- 18) 에바다반(에바다부 및 농아자) 마 5:3-10(8절)

- 19) 새신자부 및 세례부에서 교육중인 성도와 교사, 찬양대원, 남·여 전도회원, 교역자, 장로등 교회학교 학생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은 성도는 해당 연령의 반에서 등록하여 대회에 참가한다.

참가신청

9월 17일 교회학교 각부서(해당)

실시요령: 지정된 성경을 순서대로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암송하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장절을 분명히 하여야 함)

교회설립36주년기념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준비위원회

교회설립 36주년 기념행사 안내

여전도회활동 이모저모

우리 에스더11지회가 매월 지원하고 있는 청송감호소(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소재)를 지난 7월 하순 방문하였다. 떠나기 전날 금요철야기도회를 마치고 새벽 3시30분 김의경목사를 비롯하여 임원 20명, 베테스다 회원 7명과 함께 현지로 출발하였다. 우리가 방문

에스더11지회와 청송감호소

하려는 청송감호소는 수감자 모두가 중범죄인으로 제일 적은 범죄자가 전과 7범이요, 많은 사람은 전과 20범의 정말로 세상에서 소외되고 흉악한 범죄를 범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우리 여전도회 임원들은 이들을 방문하여 과연 어떻게 위로와 사랑을 나누어야 할지를 몰라 차츰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조심스런 심정으로 6시간의 긴 여로 끝에

No.	행 사 명	일 시	주관부서	행사내용 및 준비사항	해당준비위원장	참가신청 접수마감
1.	기념감사예배	9월3일(주일)	예배위원회	1부~4부 예배		
2.	음악예배	9월3일(주일) 오후7시	예배위원회	저녁찬양예배(합창 및 독창, 기악연주)		
3.	교구별 찬양경연대회	9월9일(토) 오후2시	교구위원회	합창곡 지정곡 542장 1절	김원선장로	8월27일까지
4.	선교옹변대회	9월24일(주일)	교육위원회	①민족복음화 ②공산권선교 ③세계선교	엄필성장로	8월27일까지
5.	전교인성경암송대회	10월1일(주일)	교육위원회	마태복음 5장~7장	박승준장로	9월17일까지
6.	성경경연대회	10월7일(토) 8일(주일)	교육위원회	신구약성경, 기독교복음에 배치되지 않는 내용	손경수장로	8월27일까지
7.	장애자돕기 바자회	10월20일(금) 21일(토)	구제위원회			

말씀이 입술로만 외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처럼 속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특히 이날은 감호소 내의 원생중 120명이 생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준비한 케이크와 타올, 비누, 쥬스 등을 나누어 주고 650명 분의 떡을 전원에게 나누어 주었다. 떡을 받는 그들의 밝은 얼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 형제됨을 인식케 되었으며, 삭막

을 확인하게 되었다. 우리 일행은 왕복 12시간의 긴 여로에서 지루함도 모르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다시 한번 감사드렸다. 돌아오는 차 중에서 임원들간 친교의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 여전도회가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우리 11지회는 어둠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찾아 돌아보는 사랑이 가득한 손길이 되기를 노력하기로 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무런

“떡을 받는 그들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더욱 깨달아...”

아침 10시30분 목적지에 도착했다. 청송감호소 내에 있는 믿음을 가진 죄수들의 환영과 감호소 악대의 뜨거운 환영이 있었다.

악대들의 찬양의 음악소리를 들으며 착잡한 마음과 뜨거운 눈물이 우리를 긴장케하고 숙연케 하였다. 11교구 지도교역자인 김의경목사의 「사랑」이란 제목의 설교로 은혜의 시간을 가졌으며, 2부순서로 성경암송이 있었다. 이들이 빈틈없이 암송하는 성경말씀은 정말 다시한번 우리를 놀라게 했다. 그

한 분위기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었다. “주님! 어떤 동기로 저들이 죄인의 죄사슬에 묶여있는지는 모르으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보시고 위로하시며 함께 하여 주시사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옵소서.”

예배 후 김의경 목사와 함께 병동을 방문하여 외롭게 투병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일일히 기도하여 주고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그들의 소망이 부모형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기적의 역사뿐임

을 확인하게 되었다. 우리 일행은 왕복 12시간의 긴 여로에서 지루함도 모르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다시 한번 감사드렸다. 돌아오는 차 중에서 임원들간 친교의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 여전도회가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우리 11지회는 어둠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찾아 돌아보는 사랑이 가득한 손길이 되기를 노력하기로 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무런

일 없이 무사히 청송감호소를 다녀오게 됨을 감사드린다.

윤수원(권사·에스더11지회 회장)

원고모집

「주간총현」은 성도 여러분들의 원고를 언제든지 접수합니다.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모든 내용을 투고해 주시면 정성으로 편집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주간총현 편집국

에바다 수화교육 안내

대상/ 수화교육에 뜻이 있는 성도
교육기간/ 9월18일~11월25일
모집기간/ 8월13일~9월17일까지
(초급반·중급반·고급반)
접수처/ 소석관 109호(에바다 사무실)
※등록금 없음

교회학교 에바다부

시온성대행진종합보고서 발간

지난 6월6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시온성대행진」 종합보고서가 발행되었다.

동 종합보고서에는 시온성대행진 행사개요부터 기도제목, 조직, 업무분장 및 기본계획, 예산, 집회 및 행사보고, 새벽기도회지, 종합통계, 참모일지, 종합평가, 그리고 부록으로 행사후련 양식 및 각종 자료 사본이 일목요연하게 수록되어 있다.

구역예배를 위한

충현다락방

1989년 9월 1일(금)

교구위원회 제공

제35과 교회의 세가지 표지

성경: 엡 5:29-32

요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엡 5:32)

찬송: 245, 246장

교회의 가장 뚜렷한 표지는 말씀의 사역함에 돌림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전달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곳이라면 어디나 참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표지에서 다른 두 표지를 끌어낼 수 있다. 즉 말씀은 성례의 집행에 의해 보증되어져야만 하고, 말씀과 성례를 적절히 집행하므로 말미암아 교회의 권징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1. 교회의 표지로서 말씀의 사역

교회는 성경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성경의 권위가 없는 교회 정치는 사람들의 주장들에 의해 양심에 전할 수 없는 속박이 될 뿐이다. 만일 성경이 일반적 지침서로 격하되어 있다면 그때는 성문화된 교회 규칙이나 불문율의 전통이 교회 생활을 위한 실제적 권위가 되어버리고 만다.

예수께서는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언했다. 예수께서는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요 10:35 마 5:18, 눅 16:17) 예수께서는 또한 자신의 생애와 사역을 성경대로 성취한다는 의미로 말씀하셨다. 신약의 교회는 오순절날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전파한바서 시작되었고, 교회의 성장은 말씀의 광

으로 표사되어질 수 있다.(행 6:7, 행 12:24).

2. 교회의 표지로서 성례

두 가지 성례(세례와 성찬)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말씀의 사역이 보증된다.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안으로(into) 들어가는 것이다.(마 28:19, 민 6:27)

하나님의 이름은 기록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최초로 주어진 것에 씻음의 표가 동반되어야만 한다. 세례의 물은 죄로부터의 씻음을 상징하고 있다. 만찬이라는 기념 성례(성찬)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인 상호간에 대한 교회 서약의 역할을 한다. 성례의 축복은 하나님과 말씀과의 관계로부터 흘러나온다. 복음의 말씀이 없는 성례는 허식, 마술에 지나지 않는다. 세례를 베푸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은 '제자를 삼아 가르치라'는 명령과 연결되어진다.(마 28:19, 행 2:42, 고전 11:23-30).

3. 교회의 표지로서 권징

권징은 말씀과 성례에서 동시에 흘러나온다. 설교는 성경의 지식 전달이 아니라 결단을 요구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한다. 설교자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한다.(딤후 4:2) 그러므로 권징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행동 그 자체에서 나타난다.

함께 생각합시다

1. 교회의 표지는 무엇인가?
2. 교회의 표지 중 오늘날 가장 절여된 부분이 있다면?

공동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모든 교회 위에 은혜를 작셔서 말씀의 신실한 선포가 있게 하시고 바른 삶을 결단하는 각오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셔서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